## 한라시론

# 지하수 공수(公水)체계 위협하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이 영 웅**
제주환경운동연합

화산섬 제주는 예부터 물이 귀했다. 새벽녘 동이 트기도 전에 사람들은 수㎞ 거리의 용천수를 오가며 물을 길어 날랐다. 용천수가 없거나 부족한 마을에서는 빗물을 모아 놓은 봉천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했다. 자연스럽게 공공의 자산인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동체 문화가 형성됐다.

지하수 관정 개발이 이뤄지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받게 된 지금도 마을에 농업용수 수리계가 있는 것처럼 수자원에 대한 공동체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식수원인 지하수에 대해서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유지됐다. 물이 귀한 섬인 제주에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될 경우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하수에 공수(公水) 개념을 적용한 지하수 보전정책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제주특별법상에 이를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의 지하수를 우리가 흔히 생수라고 부르는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단 예외적으로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에만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제주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가 그것이다. 이로써 육지부에서는 온갖 사기업들이 먹는샘물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유일하다. 단, 한 곳의 사기업만 빼면 말이다.

제주특별법상 사기업의 먹는샘물 개발 금지 규정을 뛰어넘고 지하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진그룹 계열의 한국공항이다. 제주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공항이 만든 먹는샘물은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일부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제주의 지하수를 상품화해 사적 이익을 영위해 온 기간만도 40년을 훌쩍 넘는다.

한국공항은 이도 모자라 십여 년 전부터는 도민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달라며 계속해서 제주도에 지하수 증산 신청을 시도해 왔다. 더욱이 자신들이 문제해결의 열쇠를 쥔 제주지역 월동채소 화물기 운송 확대, 제주노선 항공편 확대 등을 지하수 증산의 협상카드로 활용해 왔다.

그리고 올해 기어이 한국공항은 지하수 사유화 확대의 시발점이 될 지하수 증산 허가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오영훈 도정은 제주도민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최근 한진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제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동의 절차만 남았다. 도의회마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을 동의하게 되면 제주 지하수의 공수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여러 현안에서 오영훈 도정의 지하수 보전정책 후퇴가 노골화되고 있고, 한국공항의 제2, 제3의 지하수 증산 신청이 노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제주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윤추구를 위한 대기업의 로비가 통할지 아니면 도민의 생명수를 지키려는 도민의 바람이 통할지 지켜볼 일이다.

## 사설

# 강세 먹거리물가 추석 앞둬 관리 강화해야

제주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물가는 강세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 올랐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전체 물가 오름세 둔화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때문이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가입자 이탈이 발생하자 8월 한 달간 전체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50% 인하했다. 이 영향으로 휴대전화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1.0% 급락했다.

그러나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먹거리물가 증가세는 심상찮다. 농축수산물은 전년보다 4.5%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신선채소 가격은 전월 대비 19.6% 급등했고, 신선어개(4.5%)와 과실(2.3%)도 올랐다. 수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8.6% 상승했다. 축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특히 국산 쇠고기가 6% 올랐고,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오름폭을 키워온 달걀은 9.4% 상승했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은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5%대 상승률을 보였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의 상승은 서민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 더욱이 먹거리물가의 상승은 여타 품목까지 끌어올리는 풍선효과를 낳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석을 앞둬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 당국 역시 추석 물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품목별 수급량과 물가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주4·3 희생자 보상 '세월아 네월아'

정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력 부족으로 보상금 심의 절차 지연은 물론 보상심의회 위원 결원 등으로 매년 보상급 지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은 거북이걸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이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조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위원 등 인력 부족으로 보상금 지급에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예산의 13% 정도가 지급되지 못했고, 지난 3년간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만 1500억원을 넘기고 있다.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은 2026년 12월 말까지이며, 보상금 지급은 2028년까지 진행된다. 현 추세를 감안하면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일환이다. 행안부 장관이 해결 의지를 표명한 만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상절차를 마치고 명예회복까지 매듭지어 대한민국이 4·3에 대해 진 빚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

## 열린마당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연내에 사용하세요

**정 종 욱**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는 오는 10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2차 지원금' 5만원을 본인 소유 농협 채움카드에 바우처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5일에는 1차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 대상자 연령이 기존 20~75세에서 20~80세로 확대돼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1·2차로 나눠 지급하게 됐다.

행복이용권은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제주 여성농업인들은 농업 생산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복지 혜택 접근성이 낮거나 문화·여가활동 기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행복이용권은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여가 확대, 나아가 삶의 균형을 이루는 소중한 수단이 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여러 여성농업인들이 운동시설, 문화강좌, 영화관람 등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주고 있다.

어느덧 9월에 접어들며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직 사용하지 못한 분들은 유흥·사행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한 가까운 가맹점에서 사용해 건강과 행복을 채워 가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뉴스-in

# "민주당 내분 멈추고 책임 정치 다해야"

### 제주 정가 비판 성명 잇따라

○…지난 2일 제주도의회의 '행정 구역 개편안 여론 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제주 정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

진보당 제주도당은 3일 "제주 행정체제 개편은 제왕적 도지사·도의회의 막강한 권한 집중 현상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가 본질인데도 기초자치단체 3개냐 2개냐 식의 논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내분을 멈추고 자기 성찰과 책임 정치를 다할 것"을 촉구.

국민의힘 도당은 2일에 이어 3일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막판 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오영훈 지사, 문대림·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도의회 의장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재차 성명. 진선희기자

### 파출소에 LED 건물번호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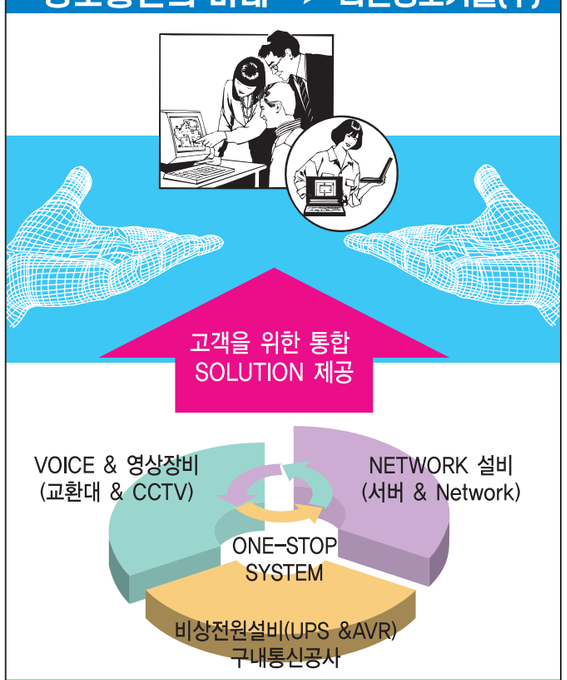
○…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와 협의해 중동지구대와 성산·중문·대정 파출소 등에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건물번호판을 설치.

LED 건물번호판은 밝은 불빛으로 일반 건물번호판보다 눈에 쉽게 띄어 멀리서도 위치 확인이 쉽고 긴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가 전기설비 없이 낮시간 동안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을 충전한 뒤 야간에 점등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 사용 가능.

시 관계자는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1개 지구대와 8개 파출소에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문미숙기자

수 축 상 CONGRATULATIONS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장 봉 길
(애월읍 하가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협의회 3대 회장)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애월읍분회
회장 박 정 심 외 회원 일동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01 도내 언론사 최초 'G마크' 품질인증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02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03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04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